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강 건 택*

< 국문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반응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서 학교생활그림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성격유형은 각각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표현양식과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표현양식과의 상관관계는 학교생활그림을 통해 학습성격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학교생활그림, 학습성격유형, 표현양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정보통신혁명의 시대는 무수한 정보를 누가 빨리 접촉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

* 제주 신광초등학교 교사 (nar001@hanmail.net)

나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정보를 모두 선택할 수도 없으며 모든 정보가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관심, 흥미, 적성, 성격 등의 개인 내적인 정보를 분명히 알아야 가능하다.

개인에게 있어 초등학교 시절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며 학교교육은 개인이 성장, 발달해 나감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인 안내와 지도는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기 힘들다.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중 학생들의 학습 성격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성격은 아동의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한 반응 양식으로 이에 대한 이해는 생활지도 및 개별화된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현장에서는 성격검사를 위한 다양하고 간편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그림(KSD : Kinetic School Drawing)에 나타난 반응 특성이 학습성격 유형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교생활그림(KSD)이 학습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아동들과의 상담 및 진로지도, 개별화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효과적인 정보가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학습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KSD)의 반응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 (1)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반응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 (2) 학습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반응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 (3) 학습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반응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 (4) 학습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반응 특성과 관계가 있는가?

나. 학습성격을 예측하는 도구로서 학교생활그림은 유용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화의 심리적 측면

미술교육이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심리학, 교육학과 사회학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동화의 연구는 이런 관련 학문을 연구해 오면서 점차로 발전되어 왔다(김정희, 1993).

미술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고를 구체화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 기분, 내적 욕구를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무의식적인 갈등, 정신역동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미술은 아동의 독자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최외선, 1998).

미술교육 분야에서는 특히 아동화 분석을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의 분석, 인지 발달의 연구 또는 환경과 아동화의 관계 등의 연구가 많이 되어 왔다.

아동화의 심리학적 연구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후 버어트(Burt, 1921), 로웬펠드(Lowenfeld, 1964) 등에 의해서 아동의 그림을 발달적 차원에서 연구하였으며, 구디나프(Goodenough, 1926)는 「그림에 의한 지능 측정-Measurement of Intelligence by Drawing」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인물화 검사(Draw-a-Man test)를 소개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아동화를 통해 지능을 측정하는 연구와 분석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본격화 되었다(김재은, 2002).

개인의 성격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투사 기법을 들 수 있다. 투사 기법이란 개인이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은 반응들을 통해 그의 성격을 고찰하려는 것으로서 비구성적인 자극, 즉 무의미한 도형이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막연한 자극을 제시하면 그 자극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기술하는 독특한 반응을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실시된다(이상로, 1986).

투사 기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법이다. 그림에 의한 방법은 연령, 기능, 미술적 소질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아동에게 큰 관심과 흥미를 끈다는 장점 때문에 아동에게 적합한 검사 도구로써 활용되어지고 있다. 또 Bellack와 Symonds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법이 Rorschach나 TAT같은 언어로 표현하는 투사 기법보다 성격의 더 깊은 층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숙희, 1985).

그림에 의한 방법 중의 하나인 학교생활 그림(Kinetic School Drawing ; KSD)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인물을 그림에 나타냄으로써 심리학적 문제들과 관련된 행동, 역동성이나

상호관계를 알아내는 임상적, 진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과 태도들에 대한 양상을 조사하는 기법이다(김양숙, 2005).

교사나 부모는 학습자의 여러 능력 측면과 함께 흥미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지도 를 할 수 있다. 어떤 학습자는 독서를 거쳐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또 다른 학습자 는 물리적 조작을 거쳐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이종금, 2000).

이는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학습의 과정과 학습유형이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조직하거나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고려하는 데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학습자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습에 대한 성격유형을 진단하는 도구들은 검사하는 데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든다. 또한 대부분이 질문법으로 되어 있어 어휘력이 낮고 문장 이해력이 덜 발달 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힘들며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 과 같은 부담감과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게 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얻어 낼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습 성격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반응 특성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교생활그림이 학습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자 료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생들과의 상담과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학교생활그림(Kinetic School Drawing : KSD)

학교생활그림은 Knoff와 Prout(1988)가 개발한 그림검사로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그들과 관련성이 있는 학교인물, 즉 자신, 친구들, 교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학교 환경 내에서의 상호관계 및 학업 성취를 알아보는 투사기법으 로써의 진단적인 측면이 있다.

동적가족화(Kinetic Family Drawing:KFD)와 학교생활 그림(Kinetic School Drawing : KSD) 등의 동적 그림체계에서 사용되는 그림은 그림 내에서 심리학적 문제들과 관련된 행 동과 역동성을 일으키는 임상적, 진단적 면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과 태도들에 대한 양상을 조사하는 기법으로써의 역할을 한다(이숙정, 1996)

또한 KSD는 학교 내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 하고 그것이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고립장면과 특별한 관계, 또는 청소년들 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호작용을 인지하게 하여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김양숙, 2005).

김애량(199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와의 친밀감이 높은 청소년은 인물상의 표정이 밝고 우호적인 반면 낮은 청소년은 표정이 어둡고 비우호적으로 나타났으며 불안감이 높을수록 긴장을 나타내고 불안감이 낮은 경우 양가감정, 신체에 대한 집착과 관심, 감정의 비개방성을 더 많이 나타내었고 자아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외선·이숙정(199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자기상과 교우상을 정면으로 그려져 있을 경우 사회적 자신감이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교우상이 정면상일수록 학습적 자아감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의 KSD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최외선·곽형식·백양희(1998)는 선생님으로부터 꾸중을 많이 듣는 집단이 적게 듣는 집단보다 완전한 신체형태의 교사상을 더 많이 나타냈다고 했으며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에서 만족집단이 즐거운 표정의 자기상, 교사상을 그렸고, 불만족 집단은 기분 나쁜 표정의 교우상을 그렸다고 했다. 또한 부(父)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상과 교우상에서 발의 생략이 적었고 부(父)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교사상을 많이 생략했다고 했다.

조미경(2004)이 연구한 자기, 교사, 교우 지각과 학교생활화 반응특성과의 관계에서 자기지각이 높을수록 교사와 협동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 자기와 교사가 우호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기지각이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가학성이 있는 교사를 그리고 경직된 자세의 교우를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다. 교사 지각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아동에 비해 협동하는 자기, 교사, 교우의 모습을 많이 그렸으며 교사의 이목구비를 다 그리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의 얼굴 표정 또한 우호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다. 교사 지각이 부정적인 집단이 교우의 자세를 경직되게 그리는 경향이 많았고 피학성과 가학성이 있는 그림이 많았다고 했다. 또한 교우 지각에 따른 학교생활화 그림에서는 부정적인 집단이 자기피학성이 나타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눈을 강조하거나 생략하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경향이 높았다고 했다.

김양숙·김갑숙(2005)은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그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보다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피학성과 가학성이 있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자기상의 얼굴표정을 비우호적으로 표현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지우기에서는 지우기를 하지 않은 집단이 스트레스가 높았다. 온화하고 우호적인 표현보다 전체적으로 비우호적이고 분리감을 나타내거나 부분적으로 분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생활그림은 학교, 의미 있는 타인, 즉 친구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는 투사기법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동 상담 및 심리치료

에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학교생활그림을 통해 현재의 심리상태 파악에 중점을 둔 연구인데 반해 본 연구는 평생에 걸쳐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일관성을 지니는 성격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학습성격유형

학습성격유형이란 학습에 개입되는 성격적 변인을 말하며, 김만권과 한종철(2001)은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학습성격 유형을 고려한 학습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Keirseley & Bates(1978)은 성격유형을 디오니소스형 기질, 에피메테우스형 기질, 프로메테우스형 기질, 아폴로형 기질로 분류했다. 이러한 4가지 성격유형을 바탕으로 학습에 나타나는 특징과 관련하여 Golay(1982)는 학습성격유형을 Actual-Spontaneous Learner, Actual-Routine Learner, Conceptual-Specific Learner, Conceptual-Global Learner로 분류하였으며 국내의 연구에서 김만철과 한종철은(2001) 위의 Golay의 4가지 학습 성격유형을 각각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4가지 기본 성격유형과 행동-규범형, 행동-탐구형, 행동-이상형, 규범-탐구형, 규범-이상형, 탐구-이상형, 행동-규범-탐구형, 행동-규범-이상형, 행동-탐구-이상형, 규범-탐구-이상형의 10가지 성격유형으로 조합 분류하였다(이경아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으로서 기본유형만 고려하였으므로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행동특성 및 선호하는 수업방식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행동형

행동형 학생들은 종이와 연필을 갖고 하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방식을 매우 지루해 한다. 이들은 순간의 충동을 자유롭게 배출해 낼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소리와 색깔과 움직임이 풍부한 자극적인 분위기에서 학습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대개 강의나 소크라테스 문답식 수업을 싫어하며 문제집이나 각 장의 끝에 있는 정리문제를 풀기 싫어한다. 이들에게 숙제란 부모-학생, 교사-학생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행동형 학생들은 음악, 연극, 미술, 공예, 기계학, 건축 등이나 그 밖의 활동적인 과목들을 선호한다(강경미, 2003). 즉 행동형 학생은 강의식 학습보다 자기 손으로 만들거나 조작하는 것을 비롯한 체험 학습을 선호한다. 활동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며 모험하기를 좋아하고 반복되는 학습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원한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함과 흥미를 갖춘 발표(presentation)식 수업을 좋아한다(이경아 외, 2004).

2) 규범형

규범형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때에 그 새로운 기술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주고,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도록 요구받는 것을 좋아한다. 계산, 낭독, 철자법 등과 같은 기계적인 기술을 연습하는 것을 즐기며, 과학의 사실적 측면, 지리, 역사, 경영학이나 회계학, 교직 등의 업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강경미, 2003). 즉 규범형 학생들은 윗사람(부모, 교사 등)의 지시에 매우 순응적이며, 그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 또한 좋은 학습 습관을 가지고 있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며 관습이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규범형은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질책이나 비난도 잘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반복, 훈련, 그리고 자료에 대한 단계적 제시를 통해서 사실과 절차들을 기억하고 구분함으로써 지식을 습득한다(이경아 외, 2004).

3) 탐구형

탐구형 학생들은 지식의 습득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야 하며,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 대개 학교 성적이 우수한데, 기초과학이나 고급 수학같이 어려운 과목도 마다하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자기 나름의 관심사만을 추구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는 주로 혼자서 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영감을 추구하고 이해하고자 하며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새로운 사실들에 전념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때로는 그 밖의 과목들에는 소홀히 하여 낙제 점수를 받기도 한다. 배워야 할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시될 때 편안해 하며, 알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래들과는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대화의 대상은 자신의 생각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자신의 생각에 수준 있게 응답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체로 사교적인 기술이 부족하여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해 본의 아니게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놀고 즐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책

을 읽거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고, 일이나 수행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때 가장 좋아한다.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로 하는 가벼운 칭찬을 받으면 기분 나빠하며 칭찬하는 사람을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경향을 나타낼 때도 있다(강경미, 2003).

즉 탐구형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유형으로 지식 탐구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며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늘 지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무엇이든 이해하고 설명하고 예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고 규칙과 원리를 많이 알고자 한다. 또한 독자적으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토론식 수업을 선호하고, 과제나 결과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기를 좋아한다(이경아 외, 2004).

4) 이상형

이상형 학생들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대개 이들은 이상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감정이입을 잘하며 표현이 풍부하고, 인격적인 교류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자 한다. 적개심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여 이러한 종류의 긴장에 계속 노출되면 신체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때도 있다. 인정과 보살핌과 관심을 받고, 감정적인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자신의 감정적인 자세를 인정받을 때 잘 성장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고 이해해주며 인정해 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종종 고통스러운 정도로 심한 부끄러움을 타므로 같은 학급의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도록 용기를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경향이 있으므로 폭력이나 공포에 의해서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급에서 훌륭하게 행동하며,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정열적으로 참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급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이나 역할 놀이, 연극 공연 및 소설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학습에 흥미를 보이며, 일대일의 대화나 소수가 모여서 하는 학습방식을 선호하며, 과학이나 경영학 같은 추상적인 과목보다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강경미, 2003).

즉 이상형은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갈망하는 유형으로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중요시하고 비경쟁적, 조화로운 관계를 선호하며 경쟁적인 상황, 갈등적인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잘 이해받을 때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 또한 이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인간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며 소그룹 토론 방식의 수업을 좋아한다(이경아 외, 2004).

학습성격 유형을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 적용해본 결과 이상형과 행동형의 비율이 높았으며 탐구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아 외, 2004). 서영근(2002)은 탐구형 유형의 학습자가 학업성취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행동형 학습자는 학업성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학습자의 학습 성격 유형에 따라 학업성취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범형 성격 유형 학습자가 학습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며, 이상형은 학습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습 성격 유형에 따라 학습전략의 사용정도가 다름을 보였다고 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382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 기제가 미비한 37명을 제외한 남학생 177명, 여학생 168명, 총 34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용어의 정의

가. 표현양식

학교생활화에서 학습성격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에 나타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검사를 1학년 3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한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 특징들을 학습 성격유형별로 추출하여 규범형 표현양식, 행동형 표현양식, 탐구형 표현양식, 이상형 표현양식으로 표현양식을 분류하여 설정하였으며 성격진단 도구로 활용이 간편하고 용이할 수 있도록 표현양식 유형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들을 간단하게 구성하였다(<부록1> 참조).

(1) 규범형 표현양식

규범형 표현양식에는 규범형 아동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환경에 순응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장소로는 교실 장면, 내용으로는 강의식 수업 장면, 자신보다 위쪽에 위치한 교사상, 반복적 표현, 자신보다 큰 교사상 등을 규범형 표현양식에 포함시켰다.

(2) 행동형 표현양식

행동형 표현양식에는 행동형 아동들이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욕구가 강함에 따라 장소로는 교실 외의 장면, 내용으로는 놀이, 청소, 잡담, 두리번거림 등 수업과 무관한 모든 역동적 활동, 자신보다 낮거나 같은 교사의 위치 표현, 자기상보다 작은 교사상 표현 등을 포함했다.

(3) 탐구형 표현양식

탐구형의 표현양식에는 행동형 아동들이 호기심과 관찰력이 뛰어나고 본질과 사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함에 따라 칠판글, 상표 등의 세부적 묘사표현, 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주머니를 활용한 문자표현, 주변 사물의 입체적 표현, 스케치하듯 여러 번의 겹치는 선, 수학, 과학, 실험, 실습 등의 탐구식 수업활동 등을 포함했다.

(4) 이상형 표현양식

이상형 표현양식에는 이상형 아동들이 인격적이고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함에 따라 장식적 표현, 순정 만화적인 맑고 귀여운 눈과 얼굴의 표현, 자아상의 펼친 팔 이내에 들어오는 가까운 타인상과의 거리, 4명 이상의 많은 인물상의 수, 자신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웃는 얼굴 등을 하위 요소로 포함시켰다.

나. 학습성격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학습성격유형은 학습성격검사 결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유형을 말하며 조합형을 제외한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이상형의 4가지 기본 유형만을 의미한다.

3. 연구도구

가. 학교생활그림(KSD)

학교생활그림 검사를 위해 사용된 재료는 A4용지, 연필, 지우개이며 연구자가 모든 연구대상 학생들에 대하여 검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급의 담임교사들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므로 검사 실시자를 위한 검사요강이 사용 되었다.

학교생활화(KSD) 검사는 수행단계와 질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수행단계에서 검사실시자는 실시상의 주의점을 충분히 인식한 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지의 뒷장에 “앞면에

여러분의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여러분 자신과 선생님, 한 명 이상의 친구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장면을 그리세요”라고 기록하였다.

KSD수행이 끝난 후 질문단계에서는 “① 그린 인물 위에 그린 순서를 적고 인물 위에 누구인가를 적으세요 ② 그림의 장면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라고 질문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연구자가 대상 학생들의 검사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었고 애매한 그림표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직접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채점기준도 연구자에 따라 달라 번즈와 코프만이 개발한 채점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36명을 대상으로 학습성격 유형을 6월에 1회 검사하고 학교생활그림 검사를 3월, 6월, 10월에 3회에 걸쳐 동일 학급을 대상으로 선행 검사하였다.

수합한 학교생활그림 108장을 대상으로 학습성격 유형별로 나타난 학교생활그림의 특징적인 표현을 추출하여 표현양식에 따른 하위 변인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학교생활그림의 채점 기준을 보면 중간 범위에 속하는 표현까지 고려하고 측정도구로서 자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분이 애매하거나 측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어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그림을 보고 확실히 드러나는 표현에만 1점, 그렇지 않거나 애매한 표현에는 0점을 주어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여 활용도 면에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했다. 채점 기준은 <부록1>처럼 자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나. 학습성격검사

학습자의 학습과 관련된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김만권과 한종철(2001)이 개발한 U&I학습유형 검사 중 학습 성격을 분류하는 5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은 학생들의 생활습관과 성격을 보여주는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같으면 ‘그렇다’, 같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니다’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학습 성격 유형은 기본형과 기본형을 조합한 14개 유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이상형 네 가지 하위 척도만을 다루고 있으며 이들 하위 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규범형 .68, 행동형 .70, 탐구형 .63, 이상형 .64이었다.

다. 자료처리

아동의 학습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처리는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분석

1.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학습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와 같다.

<표 1>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 학교생활그림 학습성격유형 | 규범형 표현양식 | 행동형 표현양식 | 탐구형 표현양식 | 이상형 표현양식 |
|------------------|-------------|-------------|-------------|-------------|
| 규범형 성격유형 | .288** | -.198** | -.060 | -.073 |
| 행동형 성격유형 | -.219** | .248** | -.081 | -.154** |
| 탐구형 성격유형 | -.022 | -.047 | .435** | -.061 |
| 이상형 성격유형 | -.061 | .054 | -.050 | .345** |

**p < .01.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첫째,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288(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도 -.198(p < .01)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은 행동형 표현양식과 .248(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도 -.219(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역시 -.154(p < .01)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탐구형 표현양식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435(p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학습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이상형 표현양식간의 상관관계 계수 역시 .345(p<.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성격유형의 하위 요소인 규범형 성격유형, 행동형 성격유형, 탐구형 성격유형,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세부 요소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2>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 학교생활그림 | | 학습성격유형 | 규범형 성격유형 |
|-------------|--|-----------|-------------|
| 규범형 표현양식 | | 교실장면 | .231** |
| | | 의자에 앉은 장면 | .205** |
| | | 높은 위치 교사상 | .297** |
| | | 반복적 표현 | .299** |
| | | 강의식 수업장면 | .264** |
| | | 큰 교사상 | .161** |
| 행동형 표현양식 | | 교실외 장면묘사 | -.204** |
| | | 역동적 활동장면 | -.180** |
| | | 낮은 위치 교사상 | -.044 |
| | | 같은 위치 교사상 | -.138* |
| | | 작은 교사상 | -.052 |
| 탐구형 표현양식 | | 세부묘사 | .068 |
| | | 입체적 표현 | -.053 |
| | | 문자적 표현 | -.033 |
| | | 스케치식 터치 | -.127* |
| | | 탐구식 수업장면 | -.099 |
| 이상형 표현양식 | | 인물상의 수 | -.063 |
| | | 순정만화적 표현 | -.012 |
| | | 인물상과의 거리 | -.106 |
| | | 장식적 표현 | -.035 |
| | | 웃는 얼굴 표정 | -.050 |

*p< .05, **p< .01.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장면에서 .231($p < .01$)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의자에 앉은 장면에서도 .205($p < .01$)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으며, 높은 위치 교사상 .297($p < .01$), 반복적 표현 .299($p < .01$) 강의식 수업장면 .264($p < .01$) 큰 교사상 .161($p < .01$)에서 역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규범형 성격 유형과 교실외 장면묘사와의 관계에서 $-.204(p < .01)$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동적 활동장면도 마찬가지로 $-.180(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위치 교사상 역시 $-.138(p < .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스케치식 터치에서만 $-.127(p < .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나) 학습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3>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 학교생활그림 | 학습성격유형 | 행동형 성격유형 |
|-------------|-----------|----------|
| 규범형 표현양식 | 교실장면 | -.114* |
| | 의자에 앉은 장면 | -.180** |
| | 높은 위치 교사상 | -.157** |
| | 반복적 표현 | -.082 |
| | 강의식 수업장면 | -.265** |
| | 큰 교사상 | .137* |
| 행동형 표현양식 | 교실외 장면묘사 | .140** |
| | 역동적 활동장면 | -.285** |
| | 낮은 위치 교사상 | .148** |
| | 같은 위치 교사상 | .063 |
| | 작은 교사상 | .129* |

| | | |
|--------------|----------|---------|
| | 세부묘사 | -.073 |
| -탐구형 표현양식 | 입체적 표현 | -.022 |
| | 문자적 표현 | -.029 |
| | 스케치식 터치 | -.076 |
| | 탐구식 수업장면 | -.103 |
| | 인물상의 수 | -.074 |
| 이상형 표현양식 | 순정만화적 표현 | -.062 |
| | 인물상과의 거리 | -.168** |
| | 장식적 표현 | -.094 |
| | 웃는 얼굴 표정 | -.161** |

* $p < .05$, ** $p < .01$.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장면에서 $-.114(p < .05)$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의자에 앉은 장면도 $-.180(p < .01)$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또한 높은위치 교사상에서도 $-.157(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강의식 수업장면 역시 $-.265(p < .01)$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고, 큰 교사상도 마찬가지로 $-.137(p < .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의 장면묘사에서 $-.140(p < .01)$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역동적 활동장면도 마찬가지로 $-.285(p < .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위치 교사상에서 역시 $.148(p < .01)$, 작은 교사상 $.12(p < .05)$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인물상과의 거리 $-.168(p < .01)$ 에서와 웃는 얼굴 표정 $-.161(p < .01)$ 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다) 학습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4>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 학교생활그림 | 학습성격유형 | 탐구형 성격유형 |
|-------------|-----------|-------------|
| 규범형 표현양식 | 교실장면 | .100 |
| | 의자에 앉은 장면 | .054 |
| | 높은위치 교사상 | -.072 |
| | 반복적 표현 | -.072 |
| | 강의식 수업장면 | -.086 |
| | 큰 교사상 | -.028 |
| 행동형 표현양식 | 교실외 장면묘사 | .111* |
| | 역동적 활동장면 | -.080 |
| | 낮은 위치 교사상 | -.095 |
| | 같은 위치 교사상 | -.059 |
| 탐구형 표현양식 | 작은 교사상 | .023 |
| | 세부묘사 | .279** |
| | 입체적 표현 | .398** |
| | 문자적 표현 | .245** |
| | 스케치식 터치 | .343** |
| 이상형 표현양식 | 탐구식 수업장면 | .367** |
| | 인물상의 수 | -.081 |
| | 순정만화적 표현 | .042 |
| | 인물상과의 거리 | -.075 |
| | 장식적 표현 | -.021 |
| | 웃는 얼굴 표정 | -.079 |

*p < .05, **p < .01.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외 장면묘사에서만 -.111(p < .05)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모

든 요소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묘사에서 .279($p < .01$), 입체적 표현에서 .398($p < .01$), 문자적 표현에서 .245($p < .01$), 스케치식 터치에서 .343($p < .01$), 탐구식 수업장면에서 .367($p < .01$)로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습 성격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라) 학습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

<표 5>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N=345)

| 학습성격유형 | | 이상형 |
|--------------|-----------|--------|
| 학교생활그림 | | 성격유형 |
| 규범형 표현양식 | 교실장면 | .049 |
| | 의자에 앉은 장면 | -.121* |
| | 높은위치 교사상 | -.073 |
| | 반복적 표현 | .027 |
| | 강의식 수업장면 | -.100 |
| 행동형 표현양식 | 큰 교사상 | -.038 |
| | 교실외 장면묘사 | -.039 |
| | 역동적 활동장면 | .099 |
| | 낮은 위치 교사상 | .018 |
| | 같은 위치 교사상 | .018 |
| -탐구형 표현양식 | 작은 교사상 | .065 |
| | 세부묘사 | .040 |
| | 입체적 표현 | -.008 |
| | 문자적 표현 | -.003 |
| | 스케치식 터치 | -.021 |
| 이상형 표현양식 | 탐구식 수업장면 | -.126* |
| | 인물상의 수 | .088 |
| | 순정만화적 표현 | .336** |
| | 인물상과의 거리 | .245** |
| | 장식적 표현 | .289** |
| | 웃는 얼굴 표정 | .297** |

* $p < .05$, ** $p < .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p < .01$). 이를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의자에 앉은 장면에서 $-.121(p<.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탐구식 수업장면에서 $-.126(p<.05)$ 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었다.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인물상의 수를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정만화적 표현에서 $.336(p<.01)$, 인물상과의 거리에서 $.245(p<.01)$, 장식적 표현에서 $.289(p<.01)$, 웃는 얼굴 표정에서 $.297(p<.01)$ 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반응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진단도구로서 학교 생활그림이 유용한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2개시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4,5,6학년 남학생 177명, 여학생 168명, 총 345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환경변인 설문지와, 학습성격유형 검사, 학교생활그림을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습성격유형의 규범형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도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교실장면 표현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자에 앉은 장면, 반복적 표현, 강의식 수업 장면, 자신보다 큰 교사상, 높은 위치의 교사상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 외의 장면묘사, 역동적 활동 장면, 자기상과 같은 위치의 교사상에 대하여 유

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스케치식 터치에서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표현 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듯이 규범형 학습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것은 규범형 성격유형의 학생들이 갖는 규범적인 성격이 그림 표현에서도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생활 그림의 행동형 표현양식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행동형 학습성격 유형과 상반되는 표현양식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실 외 장면 묘사, 역동적 활동장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낮은 위치 교사상, 작은 교사상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교실장면, 의자에 앉은 장면, 높은 위치의 교사상, 강의식 수업장면, 자신보다 큰 교사상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관계가 없었다. 이상형표현 양식과의 관계에서는 가까운 인물상과의 거리, 웃는 얼굴표정에서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학습 성격유형의 행동형은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 반대의 표현 특징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행동형 학습유형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활동적이고 자유롭고 싶어 하는 외향적인 욕구가 그림 표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학습성격 유형의 탐구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묘사, 입체적 표현, 문자적 표현, 스케치식 터치, 탐구식 수업장면에서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교생활그림의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의 관계가 없었다. 행동형 표현양식과는 교실장면 묘사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상관이 있었고 이상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관계가 없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탐구형 학습 성격유형은 학교생활그림에서 탐구형 표현양식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탐구형 학습 성격유형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과 사실을 추구하려는 탐구적 성향이 학교생활그림에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상형 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소별로 살펴보면 인물상의 수를 제외하고 순정만화적 표현, 가까운 인물상과의 거리, 장식적 표현, 웃는 얼굴 표정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의자에 앉은 장면에서만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행동형 표현양식과는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없었다. 탐구형 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는 탐구식 수업장면에서만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학습 성격유형의 이상형은 학교생활그림의 이상형 표현양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상형 성격유형의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향과 사람과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려는 욕구가 학교생활그림에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습성격유형과 학교생활그림의 표현양식과의 상관관계는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그림을 통해 학습성격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설문지식 성격검사 도구와 함께 학교생활그림을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성격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성격과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양식과의 관계를 밝힐 수는 있었으나 1, 2, 3학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지필검사인 학습성격유형 검사는 문장 이해력이 낮고 성격형성 과정에 있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검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저학년의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특징들의 변화에 대한 후속연구와 함께 동일 대상이 고학년이 된 후 학교생활그림의 특징을 분석하는 종단 연구가 후속 된다면 학교생활그림을 통하여 저학년의 학습성격유형도 예측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 중 기본 유형만을 대상으로 한 기초 연구이므로 실제 아동들의 성격은 조합형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며 실제로 그림을 통해 성격을 예측할 때는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양식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성격유형을 학교생활그림 한 장으로만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표

준화검사와 함께 활용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그림에 나타난 표현양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비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구성한다는 의도가 있었으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현장에서 활용할 때는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학생들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서 표집대상을 추출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전국 단위로 표집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재은(2002).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 교육과학사.
- 김만권,한종철,이기학(2002). 학습상담전문가 활용가이드. 서울:연우심리연구소.
- 김정희(1993). 아동화의 연구방법. 미술교육논총, 제2집, 99~118.
- 이경아 외(2004). 학습 성격 유형 및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상담 및 심리 치료, 16(1), 107~121.
- 김양숙,김갑숙(2005).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미술치료 연구, 제12 권 제1호, 159~178.
- 김동연,최외선,오미나(1998). 초등학생의 사회성과 학교생활그림(KSD)에 관한 연구, 미술치료연구, 제5 권 제2집, 299~318.
- 최외선,곽형식,백양희(1998). 환경변인에 따른 초등학생의 KSD반응특성 : 인물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제5권 제1집, 181~195.
- 김숙희(1985). 서울시내 여학생의 초경시 정서반응 및 신체증상에 관한 관찰.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Vol.28 No.2.
- 김애랑(1995). 학교생활그림을 통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지각에 관한 연구 : 역동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강경미(2003). 성격유형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만족의 차이 비교.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조미경(2004). 초등학생의 자기·교사·교우 지각과 학교생활화(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석사 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홍승희(2005). 초등학교에서의 대인관계와 학교생활그림(KSD) 반응특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 서영근(2002). 학습성격유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 학교.
- 이상로(1986).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종금(2000). 초등학교 자연과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와 성취도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서울 교육대학교.
- 이숙정(1996).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그림(KSD)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영남대학교.
- Knoff, H., & Prout, H. T.(1988). *Kineic Drawing System for Family and School : A Handbook*. Californi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부록 1 >

학교생활그림(KSD) 채점 기준

| 영역 | 변수 | 반응 | | 채점기준 |
|-------------|-----------------|----|---|--|
| | | 1 | 0 | |
| 구범형 표현양식 | ·교실 장면 묘사 | | | 교실 장면이면 1점, 아니면 0점 |
| | ·의자에 앉은 장면 묘사 | | | 자기상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1점, 아니면 0점 |
| | ·높은 위치의 교사상 | | | 교사상의 위치가 자기상보다 높으면 1점, 낮으면 0점 |
| | ·반복적 표현 | | | 같은 물건의 반복적 배열이나 그물같이 반복적 구조로 된 사물을 생략 없이 묘사하고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 | ·강의식 수업장면 | | | 학생들은 앉아 있고 교사만 앞에서 수업하는 장면이면 1점, 없으면 0점 |
| | ·큰 교사상 | | | 교사상의 크기가 자기상보다 크면 1점, 아니면 0점 |
| 행동형 표현양식 | ·교실 외 장면 묘사 | | | 운동장, 현장학습, 기타 교실 외 장면이면 1점, 아니면 0점 |
| | ·역동적 활동장면 | | | 발표, 운동, 청소, 놀이, 잡담, 노래 등 일반 수업과 무관한 활동이면 1점, 아니면 0점 |
| | ·낮은 위치 교사상 | | | 자기상 보다 낮은 위치의 교사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
| | ·같은 위치의 교사상 | | | 자기상과 같은 위치의 교사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
| | ·작은 교사상 | | | 자기상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의 교사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교사상이 생략되면 1점 처리 |
| 탐구형 표현양식 | ·세부묘사 | | | 전반적으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1점, 아니면 0점 |
| | ·입체적 표현 | | | 평면적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물의 표현이 입체적이면 1점, 아니면 0점 |
| | ·문자적 표현 | | | 사물에 있는 문자 말고 부연설명을 위한 문자표현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 | ·스케치식 터치 | | | 스케치하듯 터치가 전체적으로 여러 번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 | ·탐구수업 장면 | | | 토론, 실험, 실습 등의 수학, 과학, 탐구관련 활동 장면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 이상형 표현양식 | ·인물상의 수 | | | 총 인물상이 4명 이상이면 1점, 아니면 0점, 단 경기장 관중인 경우 무시 |
| | ·순정만화적 귀여운 표현 | | | 순정만화에 나오는 맑고 귀여운 얼굴 표현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 | ·가까운 타 인물상과의 거리 | | | 자기상의 팔을 완전히 뻗을 때 들어오는 인물상이 있으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 |
| | ·장식적 표현 | | | 인물상이나 주변에 꽃, 리본, 레이tm 등의 장식적 표현이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 |
| | ·웃는 얼굴표정 | | | 자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웃는 표정이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and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Gang, Geon-Taeg(Jeju Singwang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ing style and the reactive characteristics of Kinetic School Drawing(KSD) in elementary school, and to examine availability in KSD as a tool that can predict character.

The conclusions, which were obtaine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ormative mode in a learning style was indicate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normative expression mode in KS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ynamic mode in a learning style and the dynamic expression mode in KSD was indicated t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hird, there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igative mode in a learning style and the investigative expression mode in KSD.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al mode in a learning style and KSD was indicated to have partial correlation. Given examining by each element, except the number of human figures, th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as indicated in expression of Korean Girl`s Cartoon, in distance from close human figure, in decorative expression, and in smiling face expression.

Accordingly, the correlation between a learning style and the expression mode in KSD, which was shown in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possibly utilized as the useful basic data that can predict a learning style through KSD. Given using KSD together with other personality inventory in questionnaire, it will be able to be measured more effectively.

Key Words : Kinetic School Drawing(KSD), Learning style, Expression mode